

원도심의 화려한 부활...역사·문화로 되살아난다

내년 완공 목포 '역사문화의 길' 조성사업 순조

목포 원도심이 '문화'와 '역사'로 되살아나고 있다.

목포시가 지난 2007년부터 총 사업비 190억원(국비 95억, 시비 95억)을 들여 추진중인 '역사문화의 길' 조성사업 덕분이다.

원도심 가운데서도 특히 유달·만호동과 남양·무안·북교동 일원 3만8047㎡에는 일제 강점기 건물 등 근대역사문화 자원들이 산재해 있다.

시는 이들 자원을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복원시켜 문화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이 사업을 의욕적으로 진행해오고 있다.



목포 역사 문화의 길 조성 사업의 핵심부인 유달동 일대. 일본 조계지로 유명한 이곳엔 일제 강점기 근대역사문화 유적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다.

오는 2015년 완공 예정인 '역사문화의 길' 조성사업은 크게 ▲전통 문화지구 ▲창조 문화지구 ▲개항 역사지구 등 3개 지구로 나눠 추진 중이며, 유달산길·목포 바닷길·레저 경관길 등 총 2.93km의 3개 탐방로도 함께 조성된다.

현재까지 사업지구내 추진 실적을 보면 '목포 근대역사문화 예술공원'을 조성(2011년)한데 이어 옛 청년회관을 리모델링해 남교 소극장으로 재오픈했다. 또 구 일본 영사관은 지난 2012년부터 사업비 19억 원을 투입, 내부 리모델링 공사를 거쳐 지난 2월말 목포 근대역사관(1관)으로 화려하게 부활했다. 이와 함께 구 달성초등학교 부지에 신축중인 '유달 예술타운'은 오는 25일 준공을 앞두고 있다.

◇문화 관련 자원=시는 상설 공연장이 없어 애로를 겪는 시립예술단체와 민간단체들의 보급자리 마련을 위해 폐교된 달성 초등학교를 헐고 이 부지에 유달 예술타운을 신축중이다.

대지면적 1만2851㎡에 연면적 1890㎡인 유달 예술타운은 300명이 동시 관람 가능한 대공연장을 비롯해 야외 공연장과 전시실, 관광객들을 위한 체험 공간 등이 갖춰져 있다. 지난해 5월 착공된 이 사업은 총 사업비 54억이 투입됐다.

이곳에는 시립 예술단체인 시립 국악원과 전남 도내 최우수 극단으로 명성을 떨쳐온 '갯돌'이 입주한다. 특히 이곳에는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판소리, 전통무용, 사물놀이, 탈춤 등을 직접 체험하고 배울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된다.

시립국악원 서광수 원장은 " 그동안 공연장이 없어 애로가 많았으나 실내외 공

옛 달성초교, 유달예술타운 변신 근대역사관 리모델링 교육장으로

국내외 관광객 늘며 활력 불어넣어



폐교된 구 달성초교를 헐고 신축한 유달예술타운 건물. 오는 25일 준공을 앞두고 있다.

연장 등 안정적 여건이 마련돼 앞으로 상시 공연을 펼쳐 시민들에게 한발 더 다가가는 예술단체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극단 '갯돌'의 안영재 기획실장은 "문화로부터 소외된 지역민 누구나 문화 향유를 누릴 수 있고 관광객 참여형 콘텐츠를 개발해 지역경제발전과 원도심 활성화의 중심이 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역사 관련 자원=사업 지구내에 구 일본 영사관을 비롯해 구 동양척식 주식회사, 구 목포 청년회관, 구 동본원사 목

■역사문화의 길 조성사업은

- 사업 기간 2007년~2015년, 총 사업비 190억원(국비 95억·시비 95억) 투입
- 전통문화거리·창조문화지구·개항역사지구 3개 지구 나눠 추진
- 근대역사문화 예술공원 조성·남교 소극장 재오픈 등 근대유산 복원
- 유달산길·목포바닷길·레저경관길 등 2.93km 3개 탐방로도 조성



목포 근대역사관 특별전시실에 마련된 1940년대 당시 목포 오거리의 축소 모형.

포병원, 목포 양동교회, 구 호남은행, 구 목포 심상고등학교 강당, 정명여학교 구 선교사 사택, 나상수 가옥 등 9개소의 대표적 역사관련 건물이 산재해 있다.

이들 중 구 일본 영사관(사적 제289호)은 역사적으로나 건축사적으로 목포 지역에 현존하는 최고의 근대 문화유산으로 꼽힌다.

일본 영사관, 이사장, 목포부정으로 사용돼오다 해방 이후에는 목포시 청사(1947~1974년)→목포시립 도서관(1974~1989년)→목포문화원 등으로 사

용돼 온 파란만장한 이력을 지닌 이 건물은 내부 리모델링을 거쳐 지난 2월말 목포 근대역사관(제1관)으로 새롭게 개장했다.

이 역사관에는 1897년부터 1945년 해방 이전까지 근대 목포의 정치·경제·문화·항일운동과 관련된 100여점의 다양한 유물들이 전시돼 있다.

상설전시관(1·2층)과 방공호 등으로 구성된 근대역사관은 5개 상설 전시관을 비롯해 31운동 체험코너와 1개 특별전 코너가 마련돼 있다.

체험코너인 '만세운동 함께해요'에는 당시 독립운동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의상과 안경, 쪽머리 등이 구비돼 있고, 체험 후 감상문을 적어 벽면에 부착할 수 있도록 꾸며졌다.

특별 전시실에는 1940년대 목포 오거리의 모습이 축소 모형으로 재현돼 있다. 또 구 동본원사 목포별원, 구 호남은행 목포지점, 중앙동 적산가옥, 목포 양동교회, 북교동 문익수 가옥, 정명여교 구 선교사 사택 등 총 10점의 미니어처가 전시돼 있어 주요 근대문화 유산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다.

이 건물의 자랑거리인 벽난로가 당시에는 1.2층 모두 각 실에 총 9개가 설치돼 있었지만 현재는 2곳만 원형대로 보존(7개는 복원)돼 있다.

개관 이후 현재까지 관람객은 1만5000여명, 주중에는 100여명, 주말에는 300명 정도 찾는데 주로 외지인들이 많다는 것이 역사관 관계자의 설명이다. 일본인 관광객도 지금까지 1000여 명이 다녀갔다.

'역사문화의 길' 조성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해 온 원도심 사업과 김진현 담당은 "역사가 문화를 만날 때 관광 상품이 되고 있다"면서 "침체된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민선 3, 4, 5기 10년 동안 해양관광 중심도시를 주창해온 목포시. 지난해에만 총 700만 명의 관광객이 목포시를 찾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 사업이 마무리되는 2015년에는 '관광객 1000만 명 시대'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목포시의회 출범하기도 전에 의장·위원장 후보 확정 논란 새정치지역위 과도한 개입 지적

목포시의회 원 구성을 둘러싸고 뒷방이 무성하다.

새정치민주연합 목포지역위원회는 지난 14일 지역위원회 사무실에서 당 소속 19명의 당선자가 참석한 가운데 경선을 통해 오는 7월 개원하는 제10대 목포시의회의장단 후보와 상임위원장단 후보를 각각 선출했다.

이날 의장 후보에 조성오 의원, 부의장 후보에 성해리 의원이 확정됐다.

또 운영위원장 후보에 이기정 의원, 기획복지위원장 후보에 최홍림 의원, 관광경제위원장 후보에 조요한 의원, 도시건설위원장 후보에 정영수 의원이 선출됐다.

이를 두고 지역정기는 목포시의회를 사실상 독식한 새정치연합 목포지역위원회가 중앙당과 전남도당의 지지를 내세워 원 구성까지 개입한 것은 지방의회의 자율성을 침해한 과도한 개입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시의회가 출범하기도 전에 의장과 위원장 후보를 확정해 발표하는 것은 일당 독주의 전형적인 폐해"라며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한편 목포지역위원회는 "후보 선출은 중앙당과 전남도당의 '기초 및 광역의회 원구성'과 관련한 지침'에 근거해 이뤄졌다"고 밝혔다.

지침은 '새누리당과 야합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고 선출된 후보가 당해 직책에 선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6·4 지방선거에서 목포시의원 전체의원 22명 가운데 정의당 2명, 무소속 1명을 제외한 새정치민주연합 19명이 당선됐다.

/목포=임영준기자 lyc@kwangju.co.kr

목포대 취업률 높이기 위해

서울·경기 취업지원단 발족

목포대학교는 수도권 취업 네트워크 구축 및 취업률 제고를 위해 서울·경기지역 취업지원단을 최근 발족했다.

취업지원단은 홍성돈 밝음기획출판사 대표를 위원장으로 강창원 강교수비즈니스쿨 대표, 김대준 정동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전무, 김한수 온세건설 대표, 이재수 ㈜베스트플라워 대표, 이재정 진우전자 대표 등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앞으로 수도권 우호적 기업 소개와 함께 취업 알선을 통해 재학생 취업 기회를 확대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목포대는 앞으로 다른 권역과 해외까지 취업지원단 결성을 확대해 계획이다.

/목포=김준석기자 kjs0533@

고풍스러운 분위기의 오리정음점

착한 산수정

한분이라도 정성을 다하여 모시고 있습니다.

약오리
오리구이
오리주물럭

목포시 미향로 21(하당 우미5차 부근) T (061)281-5231

30년 전통의 -

민우액자표구화랑

영화 캔버스 액자, 표구, 각종액자 제작, 그림판매

작가의 작품을 더욱 빛나게 하기 위해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대표 허 경 식

목포시 산정동 112-1 (백년로 4거리 장악국 건너편)
T (061)274-1481
H 010-2632-1481